



광주시 동구 지원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해 위드 코로나 시행을 맞아 지원1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직거래장터를 열어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홍보하고 이웃과 마을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힐링의 시간을 마련했다.

/동구 제공

기약 없는 일상회복... “확실한 백신은 나눔과 온기”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는 새로운 국민의 전환을 여러번 맞이했다. 국내에 백신이 도입되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됨에 따라 사태의 돌파구를 찾는 듯 했으나, 병상 확보부터 방역 패스까지 곳곳에서 균열이 생기면서 위드코로나는 시행 45일 만에 백기를 들고 말았다. 오미크론 변이에 돌파감염까지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 확산세 속에 광주지역 의료진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전체의 피로도는 극에 달했다. 그러나 위드코로나 정책이 중단됐다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한발짝 나아가야 한다.

/편집자 주

광주시, 재택 의료 지원 확대 등 방역대응 체계 구축 5개 자치단체, 코로나블루 치유·통합돌봄 중점 추진 경찰, 음주단속·사회약자 보호·범죄예방 활동 전개 교육자치 맞춤형 진로진학상담 등 학습 결손 최소화

◇보건 인력 보충·재택 의료 지원 강화
최근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보건·방역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선별진료소 검수 건수 증가와 재택치료 전환, 추가접종이 본격화되면서 각 자치구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의 피로 누적이 심화되고 있어 과로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마저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담당 인력을 추가 보충하고 재택 의료 지원을 확대해 새로운 방역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 나가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금으로 2억 8,560만원을 지급했다. 이로써 광주에는 보건소당 6명씩 총 30명의 인력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 의료 관련 종사자를 포함해 행정지원 인력이 각 자치구 업무 수요에 맞게 배치돼 선별진료소, 예방접종, 재택치료 관리 등 보건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기 외래 치료 센터도 새롭게 지정한다. 재택치

료 중에 따라 치료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를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한, 재택치료를 기관과 감염병 전담병원을 추가 지정해 재택 치료자와 위중증 환자 대응에 부족함이 없도록 대처할 계획이다.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과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도 확대한다.

◇방역 재정비... “일상 회복 노력”
광주지역 5개 자치구들도 정부 지침에 연계해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고 3차 추가 접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 사회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해 일상회복 단계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구축하면서 의료계 등 유관기관들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 코로나 블루 치유와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광산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피해를 극복하고자 4대 분야에서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



광주시 광산구 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이 성탄절을 앞두고 진행한 ‘행복드림 산타가 떴다~go!’ 행사에서 독거어르신 100세대에게 극세사 이불 50채 등 겨울나기를 위한 물품을 전달했다. /광산구 제공

했다. 4대 분야는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로 구분했으며, ‘치유’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서구는 분야별 대응 방안을 점검해 ▲단계적이고 질서 있는 일상회복 ▲방역과 경제의 조화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중심의 일상회복이라는 ‘서구형 위드 코로나’ 3대 원칙을 세웠다. 이를 위해 157건의 구정 주요 업무를 ‘경제민생, 사회교육, 자치안전, 방역의료’ 4개 분야별로 구분해 추진, 위드 코로나 시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해 시민 일상회복과 공동체 방역·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능동적·효율적 조직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맞춤형 시민안전 치안활동 전개 위드코로나의 해방감으로 음주운전과 개인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우려가 높은 만큼 성공적인 위드코로나 정착을 위해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수사기관의 치안·방범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등을 포함한 교통안전 지도,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등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 시민안전 치안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먼저 야외활동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공원 등 공중화장실 비상벨 점검을 통한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 전개를 실시한다. 또 경찰은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시민안전 확보를 목표로 지속적인 단속과 맞춤형 안전활동 추진하는 교통안전 분야 치안활동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이나 사업용 이동수단 수요 폭증에 대비해 버스·택시·렌터카업체 방문 안전교육, 대형화물차 위주 계도·단속 등 중점 안전활동을 발의 방침이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선 주간·심야 구분 탄력적 시간대 적용, 각 경찰서별 매일 단속장소를 다르게 선정하고 이동식 단속을 펼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현장활동도 강화한다. 학교 방문 위기청소년 대면상담 (Stay-Talk)을 지속 추진하고 등·하교시간 민·경·학교 합동 캠페인 및 비행우려지역 순찰 활동을 이어간다.

◇학습결손 교육회복 환경시스템 구축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위드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교육회복을 위한 교육환경 시스템을 구축한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습 결손 회복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제와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과보충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심리·정서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연계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학급단위 심리지원 교육 프로그램도 보급한다. 전남교육청도 국어, 수학 등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전담교사제를 확대하고, 학업역량 진단을 위한 평가지표도 구축한다. 이와함께 내년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학교시설 개선과 함께 통합운영학교 사업에 교육행정을 집중해 나간다. 특히, 전남형 미래교육 플랫폼인 ‘전남메타스쿨’을 새롭게 개통해 실시간 쌍방향수업과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력을 키워 줄 계획이다. 또 그동안 고등학생 중심으로 실시했던 맞춤형 진로진학상담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진로·진학·직업교육도 크게 강화한다. /사회부

www.kps.co.kr
Green Energy와 함께, 사랑받는 지속성장 기업 한전KPS!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 한전KPS가 ESG 경영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E 환경 Environment: 지속성장을 위한 그린에너지사업 확대
S 사회 Social: 국민 체감·업과 연계된 사회적 가치 창출 선도
G 지배구조 Governance: 국민에게 신뢰받는 윤리·투명·안전경영 강화
한전KPS의 역할: 한전KPS는 국가경제의 핵심 기반산업인 전력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발전 및 송전설비에 대한 무결점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전KPS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고객사 전력설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전KPS주식회사